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 Abraham on Mount Moriah

창세기 22장 -Genesis 22

하나님의 그를 준비 시키신 갑작스러운 시험.

하나님의 그를 온전하게 하신 순전한 믿음

들어가기에 앞서

1. 십자가의 길
2. 십자가의 의미
3.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그를 보호하심의 엄연한 진리.

## 희생

### 창세기 22장

몇 해 전 나는 존 헌트 경의 유명한 저서인 **에베레스트의 정복**이라는 책을 아주 흥미 있게 읽었다.

내가 그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산 정상을 실제 정복하는 단 한가지의 일에 대해 6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은 배경에 대해서 다뤘다. 이 부분은 일에 대한 시각과 문제점들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두 번째로는 계획에 대한 것인데, 주요 예상 가능한 일들에 대한 체계를 잡는 것과 사람을 고르는 일 그리고 훈련과 장비에 대한 광범위하고 방대한 양의 문제들의 계획이다.

세 번째는 접근에 관한 것이다. 네팔과 쿨부(Khumbu) 여행에 대한 여행 연습은 물론 고지대와 추운 날씨 등의 극한 기후와 환경 변화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날씨뿐 아니라 빙하 표면에 정찰도 포함된다.

네 번째는 용품 등을 비축하고 초기 등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도전이 묘사되어있다.

바로 이 부분! 이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부담감과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육체적 장애, 그리고 극한 속에 처해있던 그들의 길을 그려낸 것은 얼마나 대단한가! 그들을 끊임없이 전진하게 하고 위험과 죽음 그리고 재난에 직면하면서도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한 인간의 꺾이지 않는 이야기 말이다. 무엇이 그들을 전진하게 하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들을 피로와 탈진, 세찬 비바람과 같은 거친 날씨, 산소 부족 그리고 혹독한추위와 싸워가며 눈과 돌로 덮인 그 산의 정상에 오르게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결심은 그들을 정상으로 내몰았다.

애드먼 힐러리 경은 이렇게 묘사다.

1시간 여 동안 계속해서 걸던 우리는 산등성이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문제에 직면했다. 40 피트상공의바위... 그 바위 자체만으로는 호수 지구에서 산악 전문가들에겐 흥미로운 도전 거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약해진 힘으로는 극복하기에는 너무 힘든 장벽이었다.

에드먼드 경은 그가 그 길을 오를 때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처마 끝과 같은 돌림띠와 바위 사이에 좁은 홈과 같은 틈들을 발견했고 그 곳에서 힘든 싸움을 이어 갔다.

“모든 작은 바위들을 이용해서 버텼고, 무릎과 어깨 그리고 팔의 모든 힘들을 최대한 모아서 나는 말 그대로 그 틈들만을 이용해서 올랐다. 열성적인 기도와 그 처마와 같은 돌림띠는 나를 바위에 붙어서 남아있게 해 줬다.

그리고 능선을 오르고, 좁은 눈길 위에 발을 내 던지고 나서 시간과 힘은 고갈되었다. 그리고 그 후, 몇 차례의 실패 끝에 산 정상에 닿게 되었다.

그 때가 바로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

해발고도 29,003피트의 지구상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두 사람은 우뚝 서게 되었다. 이 전에는 결코 정복되어지지 않았던 높이였다. 지구상의 그 누구도 이들보다 높은 곳에 있을 수 없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에베레스트가 아닌 모리아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두 남자가 산 정상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길은 록키 산맥의 에베레스트 보다 더 가파르다.

그 길은 더 거칠고, 더 어렵고, 더 많은 땀가가 따르며 더 가파르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30여 세기 이전에 그 정상에 올랐을 때, 그 누구도 오르지 못했던 가장 높게 치솟은 영적 고도였다.

이는 타인을 위한 희생과 자신을 내어주는 것의 가장 높은 절정을 나타낸다.

영적으로 이 지구상에 모리아산보다 높은 정상은 단 하나 갈보리 산이다.

그 어느 영원한 역사속에도.

아브라함은 참으로 50년도 넘게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경사와 언덕에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발걸음을 따라갈 것이다.

한심할 정도로 우둔한 우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실로 손에 망원경을 지니고, 그 여정에 어려움을 직시해가며 가야 한다.

우리의 최선은 몇 가지 기본사항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다음의 사항을 살펴보자.

## 1. 하나님의그를 준비 시키신 갑작스런 시험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부르시되” 라는 말은 우리를 놀랍게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롯을 테스트하신다고 읽은적이없다

·  
롯은 결코 믿음의 어려움을 넘어서서지 못했고.

그를 테스트할 필요는없었다.

그의 알고, 비어있는, 세속적인, 현세주의의 삶은 모두 너무나 잘 알려져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 시험은 한꺼번에 생각지도못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어떤 일? 물론 앞에있는 10장의일들말이다.

당신은 반드시 그 장에서연속해서 사용하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여기에는 모리아산 이전에 아주 긴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 길을 따라 오랜세월의준비와 과정이 함께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중동지역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있는 어셈블리를 방문하였다.

그 곳에 있는 동안 나는 베들레헴 근처의 작은 공장에서 한 토기장을 만났고 그의 초대로 나는  
그를 방문하러 갔다.

나는 그곳에서 토기장이 흙으로 하고 있는 4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첫 번째, 그가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토기장의 발을찾아내었어야했다. 이 단계는 그가 이미  
마친 상태였다.

그 후 그는 점토를 분리했다. 그는 그 발에서 점토를 파냈고 자신이생각하고있는 작품을  
만들만큼의 점토를 덜어냈다.

그 다음 그는 점토를 발견했다. 그는 점토를 알맞게 떼어 내어 두드리고 이것이 따뜻하고  
유연해질 만큼 치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점토를 자신의 작업대의 가장 중간부분에 넣고 점점 빠르게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힘을 주어 압력을 가했고 점토는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작업을 멈추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불순물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흠집이 생겼으며 그 그릇을 망쳤다고 하며 이 점토를 없애고 흙을 부셔 다시 작업대 위에 올려 외부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릇이 적당한 높이로 올려졌을 때 그는 손의 자세를 바꾸고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 압력을 가했다. 그는 어느 정도 압력을 가했고 이로 인해 그릇은 안정된 모양을 갖추고 만들고자 하는 모양으로 발전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 점토 그릇을 용광로에 집어 넣고 불에 그릇을 구웠다. 그는 그의 흙을 만드신 것이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손으로 완성 된 작품을 보여주기위해 자신의 가게 밖에 특별히 고안된 모양의 점토를 전시해 놓았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하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사람을 **발견하셨다**—저 멀리떨어져있는 우르에서.

가난한 이교도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달을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분리 시키셨다**—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들의 과거에서 분리시켜 그를 순례자와 지구상의 낮 선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사람을 **만드셨다**—각장마다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이다

거기엔 승리와 패배가 있었고 산의 정상과 계곡이 있으며, 희망과 절망이 있고 믿음과 불신이 있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안에 그 분을알아가는 꾸준한 성장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저것을 내려놓으라는 부르심을받았다— 모국을 포기하고—요르단의 비옥한평야를 내려놓고—이스마엘을 양보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한걸음 한 걸음 더 높은 곳을 향해 갔다.

그는 믿음의 언덕에 올랐다. 그는 더 낮은곳을 확장하고, 낮은봉우리들과 맞붙었다.

그는 기어오르는것을 배우고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서 말씀하셨다. “이제 아브라함아—최고의 도전이여기있다—**모라야 산.**

네가 정복할수있는지 보아라!”.

그리고 그는 그렇게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드러내게 하심을 보았다.

이와 같이 고난은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지 드러나는 장이 또 있을 까?

우리는 시편 69장과 시편 22장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고난이 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만큼 아버지에게 갈보리의 의미에 대해 말해줄수있는 장이 어디있을까?

“이제 당신의 아들을 받으소서, 당신의 단 하나뿐인...이 모리아의 땅에서 ... 그를 이 산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대한 요구는 이삭에 대한 요구를 훨씬더 넘어섰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모리아의 의미는— 심적인 고통과 아픔과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였으며— 이는 그 수백, 수척, 수만 배가— 하나님에게 갈보리의 의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성장 시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덕에서 훈련 시키시는 지에 대한 이유이다: 하나님이 왜 이를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시는 이유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하시는 이유이다.

그는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그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것이다.

“그 날이 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친절하심과 은혜를 가장 풍요롭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 토기장의 전시된 그릇들은 —그가 가진 솜씨의 승리를 말해준다.

모리아산에서 칼을 든 손과 눈물에 가린 눈으로 서 있는 아브라함—이 것은 가장 훌륭한 솜씨를 가진 토기장의 트로피였다.

당신과 나는 온 시대를통해 천군천사와 대천사와 왕좌와 주권과 정사와 권세와 함께—하나님의 은혜로 한 줌의 인간진흙을 어떻게하실수있는지는 영원한 트로피가 될 것이다.

그의 솜씨! 예수그리스도의 안에서 창조하심!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세세토록 영원무궁히하나님께 영광을 .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라고 우리는 읽었다.  
그는 믿음의 학교에 왔고 이제 시험 시간이 준비 되었다.  
그리고 이는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였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은 그의 아버지를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의 그 시험에 떨어질 뻔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그보다 훨씬 어려웠다.  
이번 시험은 그의 아버지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을 포기하라고 한 것이었다!  
그의 하나뿐인... 그의 이삭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기 위하신 시험이었다.  
그를 준비시킴으로 한 사람의 삶의 그 단계에서 행동으로 옮겨진 갈보리의 위대한 드라마였다..  
그를 준비시킴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의 뛰는 심장에 손을 얹고, 우리는 이해한다, 우리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가셨음을 그의 하나뿐인 아들,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으로..

모리아는 “여호와와의 예견”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이나 인간 죄의 냉혹한 비극 혹은 인간의 반란과 악함, 타락, 죄의식에 대해 놀라지 않으셨다.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 이는 여호와께 이미 예견 된 것이었다.  
실례: 여기 손목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시계의 모든 기능은 하늘의 움직임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손목 시계의 시계 판을 시계 침들이 이동 할 때, 이들은 지구의 정확한 움직임에 따라 움직인다.  
그것은 이 것의 기능이다—이것은 시계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다.  
이 시계를 만든 이는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시계를 설계하고 제조했다.  
이것은 아주 저조한 문 버팀쇠를 만들거나 형편없는 세탁기 혹은 망원경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것은 시계이니까 시간을 말해주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천국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다져야 한다.

사람의 기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정확한 시간을 말해주지 않는 시계는 그것을 볼 때마다 시간을 알려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거짓말 작동기와 다름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밖에 있는 사람 또한 살아있는 거짓말이다.

그는 그가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그럴 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

이 시계를 제작한 이와 디자이너는 시계를 구상하는 데 이 시계가 느리게 가거나 빠르게 가거나 혹은 완전히 멈출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완전히 그 메커니즘의 특성과 마찰과 저항의 요소들과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 할 에너지 감소를 완전히 이해했을 것이다.

그래서 시계를 만들었을 때 필요의 날을 대비하여 준비 체계를 내재했을 것이다.

그는 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손이 적절한 시간과 태엽을 자동으로 감아주는 기계를 내장 해서 제대로 된 시간과 되감는 방법으로 제대로 된 시간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할 것이다. 모든 것들은 디자이너에 의해 이미 예견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사람의 죄는 여호와께서 예견하신 것이다.

그는 창조의 계획안에 구원의 계획을 내재하셨다.

하나님은 셋별이 하늘에 있거나 행성이 우주를 돌기 이전에 이러한 타락을 위한 대비를 하셨다.

우리 주 예수가 “어린 양이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언덕에 있던 이 순례자 족장에게 말했다.

이것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영원 전에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더 큰 요구의 메아리일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전에 모든 천국이 숨을죽이며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신 갑작스러운 시험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고통받는 아버지가 밤을새워가며 드센 요구와 불가능한 요구에 혼자 싸우는것을  
우리는 볼수있다!

그는 이를 통과할것인가?

천사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있었다.

이 창조물은 제막의 경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모든 인류의 모든 시간 -  
아버지의가슴을지닌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시험이라는 것이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 II.하나님의 그를 온전하게 하신 순전한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해가 떠오르니 나귀에 안장을 엮고 젊은 두 종과 함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위한 나무를 쪼개어 그 장소로 올랐다.”

이 간결한 문장을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

### 1. 십자가로 가는 길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 죽음이 던져졌다.

이제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 장소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는 일만 남았다.

저 장소는 그들의 여정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의잠을 고뇌에 시달리게했을까?.

이것은 이 이야기에 몇 번에 걸쳐 언급된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제 완전히 그 장소에 대해 악몽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겪어야만하는 고통과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괴로웠고, 큰 압박을 받았다.

그가 지금 완만한 목초지에 있거나 협곡의 바위 절벽이거나 요르단의 개울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곳 뿐이었다.

그것은 무수한 모양과 형태도 그의 마음의 눈 에 되새겨졌다.

지금, 그것은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계곡과 같이 자연이 가진 최고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빛나는 해와 아름다운 하늘의 이유로 인한 더 끔찍한 행위 더 어두운 칼의  
비수가 꽃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 곳은 험난한 언덕 사이에 있는 어두운 뱀의 성소와 같이 외롭고 괴로운 계곡이었다. 그 곳은 그림자에 가려진 긴 그늘과 같은 사자와 곰들이 도사리는 곳 같았다.

이제 그 곳은 그의 꿈 속에서 알아들을수없는 말로 이를 드러내며 웃고있던 그 해골 모양의 언덕이자 가나안 사람들이 악령에 사로 잡혀 시뻘겋게 달아오른 몰루(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산신)에게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꿈찍함을 숨기려 드럼을 두드리며 제물을 바친 것 혹은 그들을 해의 가파른 산등성이 제단에 뺏어 놓은 ..

### 그 장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장소를 향해서 갔다.”

“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아브라함은 눈을 들고 저 멀리 보이는 그 곳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곳으로 갔다. 이루 말 할수 없는 일이 행해져야하는 그 곳!”

아직 예언도 되지않은 그 날이 지목되었다... “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인 갈보리라고 불리 워 진 그 장소에 그들이 갔다

.”

그 장소! 그 하나는 또 다른 하나의의 그림자였다.

찢어질듯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는 아버지의 마음을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함축하여 엿볼수있다.

.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곳으로 향한 길로 발을 내디뎠다.

그는 나귀에 안장은 얹고 종들을 불렀다. 그는 이삭을 데려오라고했고, 나무를 쪼갬다. 길을 나설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곳을 바라 보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그가 지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결코 저버리지 않으셨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같이 가슴 아프고 허무한 일들은 요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희생할 것을 요구하셨을 때—그의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열방의 아버지”를 만드시시겠다는. 아브라함은 이 일을 따름으로 인해 신중하게 판단하였다.

그는 어떤 방법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필요로 하다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복원시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멀리 보이는 그곳을 응시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말하였다. 나귀와 함께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나와 이삭은 저 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 올 것이다.”

이들을 함께 가지 못하게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하인들에게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렇다! 그리고 소년은 되돌아온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고민은 해결되었다. 그는 소생의 땅으로 갔다.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의 소생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진행되었다! 승리는 곧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희생자는 여전히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 또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갈보리의고난 예행연습이 될 수 있었던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셨고,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 시작된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 영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조금 멀리 가서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조차도 뒤에 남아있어야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사이에 어느 누구와도 함께할수없는 성찬이 있어야 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경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 2. 십자가의 의미

“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한 나무를 준비하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그의 손에는 불과 칼을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걸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지만: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이 번제에 쓰일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걸었다.”

이것은 이삭의 겹세마네였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겹세마네는 어떤 의미였을지를 생각해본다.

우리는 그 동산에서의 고통의 울부짖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

“그 들은 갔다, 돌이함께 같이,” 라고 읽었다.

모라야는 이삭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갔다, 돌이함께 같이.

하지만 이제 이삭은 묻는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내내 두려워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두 종들과 함께 출발을 하고 나귀를 메어 놓았던 장소에서, 이삭은 그 나무의 무게를 느꼈다. 우리는 “아브라함, 번제로 사용할 나무를 가지고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읽었다. 나무는, 물론 내내 거기 그들과 함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삭은 안다 이것은 그가 견뎌야만하는 짐 이라는것을.

그것의 무게는 바로 앞으로 닥칠 그가 겪어야만 하는 드라마의 역이라는것을 제시한다 .

그는 그의 아버지, 그의 사랑이고 지혜로우며 참을성 많은 경건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서 이전에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무의 무게에 휘청거렸다.

그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든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한 손에 죽음을 상징하는 칼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죽음 이후를 상징하는 불을 들고 있었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냉기를 느꼈다.

그리고 제단을 위해 쓰일 어린양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무는 그곳에 있다.

불도 그곳에 있다.

칼 또한 그곳에 있다.

하지만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가? 번제로 사용 될 어린 양은?

그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아버지의 가슴을 쓰라리게 하는 질문을 했다.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언제인지 어디인지. 나에게 묻지 말아라. 하지만 그가 하실 것이다.

이삭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모든 질문의 끝이 쓰여져 있는 무엇인가를 읽었다.

만약 앞으로 있을 일들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그에게는 끔찍한 일이었고, 그보다 더, 그의 아버지에게는 수천 배 더 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갔다, 둘이 함께.

그리고는 그것을 받아드린다, 이제, 이삭은 알고 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느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고뇌와 고통에 들어가볼수있는가? 그가 그 일을 망설이며 떨고 있는 것이 보이는가? 그의 발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보이는가? 그가 자신의 아들을 훑쳐보는 것이 보이는가? 그 간절함과 사랑의 모습들을.

“오 나의 아들 이삭아, 나의 아들, 나의 아들 이삭! 하나님은 내가 너 대신 죽을수있게하시까, 오 이삭, 나의 아들, 나의아들!  
!”

당신은 어두운 겿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셨을까를 알수 있겠는가?

“나의 아버지! “ 예수님이 울부짖으셨다...

“내가 여기있다, 내 아들아”

“아버지, 저는 그 잔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컵 속에들어있는 당신의 거룩한 분노의 억압된 분개가 그 컵 속에 들어있는 온 사악한 세계에 대항하고있는것을 보고있습니다.

만약,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둬주실 수 있게 하소서. 그러나 이 잔을 거둬 주실 수 없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은 아들의 기도를 듣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당신은 대속할 것이 없어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이는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는가?

하나님, 그의 아버지는 그의 유일한 아들의 말 못 할 고통과 고문 그리고 그의 앞에 펼쳐져있는 죽음에 대해 너무 잘 알고졌다. 그는 이 세상의 죄에 맞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을 조금의 양금 없이 마실 것이라고.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은 침묵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였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갔다, 둘이서, 함께. 고요한 동산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무장한 군중속으로.

대 제사장 앞에서의 모의재판; 빌라도 앞에서의 모의재판, 헤롯 왕 앞에서, 그리고 다시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경멸하였으며, 그들의 조롱과 멸시의 가운데 입을 입고 가서 면류관과 채찍질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 둘이, 함께...

아침 해의 열기 속으로 나와 나무의 무게 아래 비틀거리며 가고 있다.

그 둘은 함께였다.

군중을 헤치고, 언덕에 올라, 그 곳을 향해 간다.

그 둘이, 함께...

**따라서 아브라함의 경험 안에서 십자가로 가는 길과 십자가의 말씀은 제시한다:**

### 3 십자가의 공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장작을 차례대로 내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었다, 그리고 그를 장작이 쌓여있는 제단 위에 눕혔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बे기 위해 손을 들었다.

모든 일은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제단을 쌓고, 장작을 가져오고. 소년을 묶고, 칼날을 갈고, 칼날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셨다.

자신의 아들을 향해 잔인한 칼날을 들어올리는 일을 해야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나는 양을 처음으로 베어야 했던 소년 시절의 아브라함을 상상 해 본다.

어쩌면 손수 먹이를 먹여 가며 기르던 양이었을 수도 있고, 그가 부르면 메에 하며 달려왔을 폭신하고, 까불던, 자신을 신뢰하던 사랑스러운 어린 양이었을지 모른다.

제사장으로 향할 때 그 양은 그에게 비비대고, 꺾충꺾충 뛰면서 밧줄의 끝에 매달려

따라갔었으리라.

그가 밧줄을 풀고 팔에 양을 받쳐앉았을 때 신뢰하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그 양은 피를 흘렸어야 했으리라.

그 눈은 작은 형체의 두려움에 떠는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아야 했을 테고 제단에는 적막이 흘렀으리라.

그는 스스로가 단단히 마음을 다져먹고 했어야 만 하는 일을 마치 살인을 저지르 듯이 행했고 그의 마음은 오랫동안 그 마지막 두려움에 떨며 음매 음매 하며 울부짖는 울음소리에 시달렸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노인으로서 자신의 아들을 베어야 했다.  
그의 용감하고, 순종하며 훌륭한 아들을,  
모든 기쁨의 소산인 그 아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으로 얻은 아들,  
그의 어머니의 가슴에는 이상인 아들,  
늙으막에 얻은 그의 하나뿐인 이삭, 그의 아들!

십자가의 공로!

이 세상 어디에 그런 공로가 있었기는 했는가?  
그 어떠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나무 위에 묶인 채 갈보리로 향하는 것을 보실 때,  
잔혹한 대못이 그의 사랑하는 자의 손에 내리쳐졌을 때,  
어둡고 무시무시한 골고다 언덕에서의 모든 일을 지켜보심은,  
마침내 죄에 대한 그의 진노와 분노의 날카롭고 무서운 칼을 들어  
자신의 아들을 베기 위해 높이 드셨음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였다— 오래 전 아브라함이 모라야 땅에 있는 외로운 산 위에서  
행해야 했던 그 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험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하신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말한다;

### III.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의 엄연한 진리.

아브라함의 높이든 손은 하늘로부터 부르심에 의해 도중에서 멈춰졌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지라. 아브라함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나는 네가 너의 하나뿐인 아들을 나에게 아낌 없이  
바치는 것을 보고 네가 주를 경외함을 알았으니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숫양의 덩불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대신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다.  
그것은 그를 보호해 주신 영연한 진실이었다.

이삭으로부터 멈춰졌던 그 칼날은 그리스도에게는 내리쳐졌다.

그는 이삭을 위해 숫양을 예비하셨고, 그리스도를 전인류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

이삭은 죽음의 길에서 살아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숫양의 죽임을 목격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그의 심정에 교차하고 있었을까?

나는 그가 제물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 어린 양을 양팔로 부들켜 안고 있음을 상상해본다.

그리고 그가 하는말이들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위해 대신 죽을 숫양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나는 절대 잊지 않겠고, 당신의 은혜를 입는다는 의미는 제가 구속함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를 대신해 죽은 양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들로 가득 차야 할까?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를 대신 할 수 없고, 누구도 그를 위해 죽을 수 없다.

그 한 밤중에 갈보리의어둠을 통한 임마누엘 고아의 우는외침에 하나님의 아무  
예속함도 없었다.

아브라함은 모라야 그곳에 서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라본다.

진리에 대해 생각해본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으로; 갈보리를 생각하며, 대속하심,  
구원하심은 그래서 위대하고, 그래서 넘치며, 그래서 자유롭다 !

“오 하나님, 그는 울부짖었으리라”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의 아들을 아낌 없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때

이 부족한 나를위해 죽음으로 보내신

내 짐을 기꺼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서,

그는 내 죄를 씻기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이 채워 주실것이다!

여호와와 산에서 볼 수 있으리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